

## JUVENILE TITLES

### FICTION

제목 : THE SECRET RUNNERS OF NEW YORK

가제 : 뉴욕의 시크릿 러너

저자 : Matthew Reilly

출판사: Hot Key Books

발행일: 2019년 3월 26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YA 스릴러



\*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처음 선보이는 YA 소설 - 디스토피아적 요소, 십대 로맨스, 놀라운 상상력이 가미되어 '터미네이터' '29 DAYS AFTER'와 '가십걸'이 결합된 듯한 SF 소설

시간 여행이 가능한 비밀 통로를 찾아낸 아이들, 믿을 수 있는 친구들끼리 공유하는 지하 깊은 곳의 문을 지나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 뉴욕의 십대들은 소문으로만 돌던 암울한 전망이 사실임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충격에 빠진다. 미래가 아닌 과거로 되돌아간 것처럼 폐허가 되어버린 대도시의 풍경은 무엇을 의미할까? 세계에서 가장 변화하고 화려한 도시가 어쩌다 밤이 되면 불빛 하나 보기도 힘든 절망의 도시가 되었을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매튜 레일리는 호주, 뉴질랜드 동시에 출간될 예정인 이 신작에서 우연히 미래의 뉴욕으로 가는 문을 발견한 뉴욕 최상류층 집안의 아이들에게 찾아온 충격적인 일들을 들려준다. 교활하고 못된 아이들의 집단 괴롭힘과 찌들 대로 찌든 물질주의, 십대 특유의 격렬한 분노와 라이벌 관계, 거부할 수 없는 로맨스를 현실적으로 그리는 한편, 지금 보고 아는 세계가 처참히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인공들의 고투와 목숨을 위협하는 섬뜩한 사건들이 뒤엉켜 예측할 수 없는 결말로 나아간다.

부모가 이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블루'라는 애칭으로 불리던 스카이와 딱 2분 먼저 태어난 쌍둥이 오빠 레드. 레드. 뉴욕 센트럴파크 바로 앞에 자리한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충분히 행복했던 멤피스를 떠나 유명 연예인들과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정치인, 경제인들이 모여 사는 이 아파트로 이사온 건 엄마 때문이었다. 마흔다섯이라는 나이를 직접 밝히지만 않으면 스물다섯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엄마는 200억을 훌쩍 넘는 집 정도는 현찰로 척척 구입할 수 있는 재벌과 재혼을 하면서 두 아이들도 데리고 왔다. 스카이는 아빠 대신 하나부터 열까지 공통점은 커녕 취향 하나도 안 맞는 엄마와 살아야 한다는 사실도 불만스러운데, 평온했던 동네를 떠나 뉴욕이라는 정신 없는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동이 트기도 전에 조깅과 아침 명상을 마치고 명품 원피스에 할까지 갖춰 신은 차림으로 온 식구를 맞이하는 엄마와 달리 스카이는 몸 치장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어딜 가도 사람들을 쉽게 사귀는 레드와 달리 사교성이

없어서 어딜 가나 께다 놓은 보릿자루가 되기 일쑤였다. 예상대로 새로 전학간 학교는 남들 괴롭히는 것 외에는 관심 없는 듯한 못된 애들이 넘쳐났고, 그 와중에도 레드는 금세 절친한 무리가 생겼다. 스카이가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보내는 동안 몬머스 고등학교에서도 가장 비밀스럽게 몰려 다니는 패거리와 친해진 레드는 어느 날 새벽까지 파티를 즐기고 돌아오더니, 스카이를 붙들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정을 넘겨 술에 취한 그 아이들이 레드에게 ‘비밀 통로’에 가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는데, 농담인줄 알고 선뜻 그러겠다고 대답했더니 하이드파크의 오랜 스웨덴 가옥으로 데려갔다는 것이다. 오래 전 스웨덴 정부가 미국에 배로 실어 보낸 그 이국적인 건물 구석에 지하로 이어진 작은 굴이 있었는데 그곳까지 레드를 데려간 아이들은 차례로 내려가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돌 문을 보여주었다. 그 문을 다 함께 통과한 후 정신을 차려보니 ‘또 다른 뉴욕’에 와 있었다고 레드는 이야기했다. 하이드파크도, 주변에 서 있는 건물들도 다 똑같은데 뻑뻑한 고층빌딩 창문 중 어느 곳에도 불이 켜져 있지 않았고 밤낮없이 자동차로 꽉 찬 도로는 텅 비어 있었다. 허리 높이 너머까지 자란 잡초는 길가에 버려진 자동차를 집어삼키듯 뒤덮고, 시커먼 밤길에는 그 흔한 노숙자도 한 사람 없고 인적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매일 등하갯길에 오가는 그곳, 분명 뉴욕 중심이었지만 아이들이 익히 아는 뉴욕은 사라지고 없었다. 우연히 이 통로를 발견한 아이들은 자신들을 ‘시크릿 러너’라 명명하고 주로 밤 시간에 이 낯선 뉴욕에 다녀오곤 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나중에야 그곳이 뉴욕의 미래 모습임을 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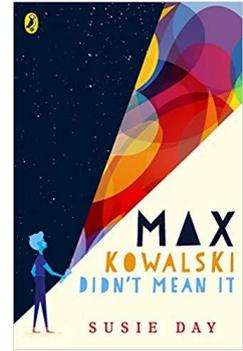
레드를 통해 시크릿 러너의 일원이 된 스카이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다. 그 비밀 통로를 통과한 후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파티를 즐기다 그대로 사라진 베키라는 여학생도 그 중 한 명이었다. 시크릿 러너였던 베키는 휴대전화에 ‘나를 찾지 말라’는 글을 남기고 흔적 없이 사라졌는데, 황폐한 미래의 뉴욕에서 알 수 없는 존재들에게 붙잡혀 감금당했다가 가까스로 도망친 그녀가 어떻게 됐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스카이는 믿기 힘든 미래가 어마어마한 빈부격차에서 시작됐다는 것과, 돈이면 어떤 위기가 닥쳐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자신들의 부모님들의 생각은 착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무 것도 잃을 것이 없는 극빈층의 반란과 그들의 축적된 분노, 울분이 가져올 처참한 결과를 인지한 스카이는 레드와 함께 뉴욕은 물론 세계 전체를 망가뜨릴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숨쉴 틈 없이 빠르게 전개되는 이야기 속에는 겹겹이 드러나는 미래의 예상치 못한 변화와 더불어 어른들보다 더 잔인하고 사악한 아이들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관한 날카로운 시각이 담겨 있다. 모든 불빛과 희망이 사라진 뉴욕, 그것이 상징하는 황폐한 미래를 경고하며 지금 우리의 무분별한 삶을 되짚어보게 하는 흥미로운 소설이다.

#### <저자 소개>

매튜 레일리(Matthew Reilly)는 월트디즈니에 판매된 『HOVER CAR RACER』를 비롯해 『SCARECROW』, 『THE GREAT ZOO OF CHINA』 등 수백 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를 다수 발표한 작가다. 현재까지 출판된 책은 전 세계 18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총 750만 부 이상 판매됐다.

제목 : MAX KOWALSKI DIDN'T MEAN IT  
가제 : 가장이 된 맥스 코왈스키  
저자 : Susie Day  
출판사: Puffin  
발행일: 2019년 9월 5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YA 성장소설



- \* 놀랍도록 다채롭고 편안한 즐거움을 주는 이야기. 작가의 책은 모든 학교 도서관에 반드시 꽂혀 있어야 한다” - 사서, 블로거 북러버 조(Booklover Jo)
- \* 진정한 ‘남성성’이란 무엇인지 고민하는 이야기
- \* 부모의 부재로 혼자 남은 아이의 성장소설. 아빠와의 화해와 이해에 대한 이야기

예고도 없이 어린 여동생 세 명을 돌보아야 하는데다 자꾸 집에 들어와서 못살게 구는 사람들 때문에 가만히 집안에 머물지도 못하게 된 맥스는 아무도 찾지 못할 곳으로 달아난다. 곧 돌아올 테니 잠시만 동생들을 챙겨 달라던 아빠는 연락도 없고 돌아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궁지에 몰린 맥스가 떠올린 곳은 웨일즈 깊숙한 곳에 있는 산간 오지 마을이었다. 그러나 그곳에는 상상치도 못했던 고난이 또 기다린다. 잠든 ‘용’이었다! 겨우 중학생인데 한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야 하는 걸로도 모자라 용을 직접 처단해야 하는 무섭고 막중한 책임까지 안게 된 맥스는 어쩌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무시무시한 용을 정말 맥스 혼자 물리칠 수 있을까?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톡 하면 아빠를 호출해서 상담하는 골칫덩어리, 숙제는 다 빼먹고 걸핏하면 사고를 치고 반 친구들과 싸움을 벌이는 말썽쟁이라는 타이틀은 원래 맥스와 전혀 무관했지만 2년 전 비극적인 일이 터진 이후부터 어느새 맥스는 그런 아이가 되어 있었다. 엄마가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은 뒤, 이제 아홉 살이 된 쌍둥이 여동생 델마와 루이스, 겨우 여섯 살인 막내 리플리와 맥스를 키우느라 아빠가 밤낮없이 돈 벌러 다니는 동안 맥스에게는 매일 아침 무사히 등교하기도 벅찬 생활이 이어졌다. 지게차 운전도 하지만 일주일에 네 번은 동이 틀 때까지 나이트클럽 문 앞을 지키는 경비원으로도 일하는 맥스의 아빠 ‘빅 피트’는 주로 아침이 시작될 때 귀가해서 훑아떨어지기 일쑤라, 도무지 말을 안 듣는 세 여동생을 깨우고, 씻기고, 챙겨서 초등학교 문 앞까지 데려다 주는 일은 전부 맥스의 차지였다. 그러니 맥스는 맨날 물 한 모금도 마실 시간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도 지각을 밥 먹듯 하면서 숙제도, 도시락도 없는 빈 가방만 들고 교실에 들어서곤 했다. 선생님들은 걱정과 한숨, 짜증이 섞인 시선으로 맥스를 바라보고 못된 아이들은 맥스에게 시비를 걸지만, 그래도 엄마가 살아있을 때부터 단짝이 된 엘리스가 늘 든든한 친구로 남아 있는 것으로 맥스는 충분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빠처럼, 덩치도 크고 어떤 일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진짜 남자’로 클 날만 기다렸다. 교장 선생님이 무슨 경고를 하건, 항상 맥스와 아이들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재미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아빠는 맥스에게 최고의 롤 모델이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부터 집 안에 수상한 상자들이 계속 쌓이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

처음에 아빠는 거실에 잔뜩 쌓인 상자에 뭐가 들어 있냐는 막내의 물음에 ‘토끼’라고 대답했다. 아빠가 일하는 나이트클럽의 여사장, ‘친절한 재키’라 불리고 맥스에게도 아주 나긋나긋한 이미지로 남아 있는 그 분의 물건인데 잠시 맡아 두는 거라던 아빠의 말처럼 하나 둘 늘어나 발 디딜 틈 없이 집안 구석구석을 채운 상자들은 며칠 후 한밤중에 전부 사라졌다. 모두가 잠든 시각, 재키 아줌마의 다 큰 아들들이 징 박힌 부츠를 신고 들어와서 다 옮겨가는 것을 그 소리에 갠 맥스는 다 지켜보았다. 문득 호기심이 들어 상자 하나를 열어본 맥스는 예상대로 그 안에 토끼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상자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건 보드카와 담배였다. 그리고 다시 며칠 후 주말에 아빠는 평소 비싸다고 잘 사주지 않는 베이컨이며 맛있는 음식을 식탁에 잔뜩 차려 놓고 아이들을 깨웠다. 군침 도는 음식들 곁에는 돌돌 말린 지폐 뭉치도 보였다. 그래서 또 다시 집에 상자가 들어차기 시작했을 때는 맥스도, 동생들도 앉을 자리가 없으며 별로 투덜대지 않았다. 원진 잘 모르지만 아빠가 재키 아줌마를 이런 식으로 도와주고 돈을 버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다. 하지만 다시 주말이 찾아왔을 때, 이번에는 즐거운 식사 대신 불안한 일이 벌어졌다. 아빠가 사라진 것이다.

아침에 깨면 자고 있어야 할 아빠가 보이지 않고 토요일 저녁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자 비상용으로 숨겨둔 휴대전화를 겨우 찾아낸 맥스는 아빠의 번호를 눌러보지만, 소파 밑에서 울리는 벨소리에 기겁한다. 전화기도 챙기지 않고 아빠는 어디로 가버린 걸까? 걱정하는 동생들을 억지로 안심시켜 재우고 뜯 눈으로 뒤척이던 맥스가 잠깐 졸고 있을 때, 꿈 속에서 갑자기 아빠 목소리가 들려왔다. 베개 밑에 지폐 뭉치를 넣으며 ‘당분간 네가 동생들을 챙겨야 한다. 내가 올 때까지만.’이라는 말만 다급히 남기고 다시 사라진 아빠. 맥스는 꿈인 줄 알았지만 아침에 수심 장의 지폐를 발견하고서야 꿈이 아님을 깨달았다. 바로 다음 날에는 경찰들이 들이닥쳐 온 집안을 뒤지더니 상냥하지만 딱딱한 말투로 아빠 어디가 있는지 아냐고 추궁했다. 상황은 알 수 없지만, 경찰이 찾는다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님을 직감한 맥스는 일단 안전한 곳으로 달아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아빠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 ‘빅 피터’라 불리는 아빠처럼, ‘빅 맥스’가 될 시간이 왔다.

작가는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알지 못했던 맥스가 꼬마 동생들까지 데리고 눈이 가득 쌓인 산간 마을로 떠난 일생일대의 모험을 가만히 쫓아간다. 이제 경찰도 따라오지 못 하리란 생각에 안심한 것도 잠시, 새로운 사람들과 친구들을 만난 맥스는 그곳에 전해 내려오는 용에 관한 전설을 전해 듣고, 어느 날 등산객만 드문드문 찾아오는 산 속에 울려 퍼지는 용의 숨소리를 듣는다. 잘못 들었다고 무시하려고 해도, 산 밑에 잠들어 있다는 전설 속 황금 용의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오고, 맥스는 직접 그 용을 없애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새로운 친구의 도움으로 용을 없앨 준비를 시작한 맥스는 완벽한 존재인 줄 알았고 무조건 닮고 싶었던 아빠가 그리 바람직한 아버지도, 모범적인 롤 모델도 아니라는 아픈 현실과 마주한다. 성장기 소년에게 꼭 필요한 남성상은 무엇일까에 관한 작가의 고민이 녹아 있는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소설이다.

#### <저자 소개>

수지 데이(Susie Day)는 2004년데 출간된 데뷔작 『Whump! in which Bill falls 632 miles down a manhole』로 BBC 텔런트 칠드런 소설 상을 수상했다. 이후 『Pea's Books』, 『The Secrets』 시리즈를 발표했다.